



여름철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좀

무좀이 만성화, 악성화로 진행될 때는 당뇨병, 결핵, 비만증, 알콜 중독 또는 직업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 홍 일

니면서 사람을 괴롭게하는 것들, 그 중에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온 탓으로 피부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피부병은 대체로 큰병도 아

서도 특히, 초여름은 무좀이 생기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멀쩡하던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때로는 손가락 손바닥에, 작은수포와 과각화증등을 일으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름에 악화되는 만성 재발성 소양성 질환을 일컫는다.

여름을 건강하게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좀이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병은 손톱과 발톱등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위별로는 발이 손보다 훨씬 호발한다. 이는 발이 손보다 땀이 잘나는 데다 밀폐되기 쉬워 피부에만 국한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즉, 표재성 진균이 기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임상적으로 무좀은 소수포형, 지간형, 각질증식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소수포형. 발바닥과 발가락에 소수포, 농포가 많이 발생, 환자는 심한 가려움으로 고생을 한다. 병소는 처음에는 작으나 차차 커져서 경계가 뚜렷해진다. 건조해지면 이 소수포는 절각색으로 변색하여 두터운 딱지(가피)를 만들고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일단 치유된듯 하나 습해지면 다시 재발하게 된다.

둘째는 지간형. 제3, 4 발가락 사이에 잘 생기며 피부가 흰색으로 들떠 있고 바닥은 적색으로 약간씩 혈기도 한다. 세째는 각화형. 손, 발바닥에 표피가질이 두꺼워지고 비늘이 붙어있다. 대단한 만성으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다. 심하면 피부가 찢 갈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3가지 형태의 무좀은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두가지 형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확실한 진단은 병소로부터 진균을 찾아내는 것인 직접도말검사법을 반복하여

확인하거나 배양법을 이용하여 병소로부터 채취한 표본물을 배양지에 심어 37C에서 약 2주일간 배양해서 진균의 형태를 직접 보는 방법이다.

이런 몇가지 방법으로 손과 발에 호발할 수 있는 농포성 건선, 농포성 세균진, 한포상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과는 감별이 가능하며 이러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전 수일동안 무좀약의 도포 또는 복용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부병변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라도 무좀이라는 확실한 진단이 치료에 앞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좀은 염증 상태와 임상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과 치료 약물이 각각 다르므로 올바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무좀이 피부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4주일 이내의 국소 및 전신적인 약물사용이 필요하며 손톱이나 발톱의 무좀은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한다. 만일 치료도중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여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써 무좀은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생각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무좀이 생긴 부위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발을 씻은 후 또는 신을 벗은 뒤에 약간 거친 수건으로 더러운 것을 충분히 제거하고 공기의 유통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 맨발로 생활하되 발가락 사이에 솜뭉치를 끼어 바람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면양말



66 무좀의 예방법으로는 되도록이면 공중 목욕탕을 피하고
땀을 잘 빨아 들이는 면양말을 자주 갈아 신으며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66

을 신는 것이 좋다.

특히 급성 염증기에는 찬얼음물로 냉
찜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환부를
차게하여 20~30분 담갔다가 말린 후 자
극성이나 기름기가 없는 항진균제 연고
를 바른다.

또 만성기인 염증기에는 각질층을 벗겨
내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각질 용해제와
항진균제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 연고제
가 효과적이다.

국소도포제로는 항진균제인 트리코마
이신연고, 톨나프테이트, 살리칠 산, 타
르 등의 용액제를 도포한다. 심할 때는
글리세오폴빈을 최소한 6~12주 동안
계속 복용해야 한다.

무좀의 치료는 매우 다양하여 치료를

해주는 사람에 따라 기호도 서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앞서 설명한대로 무좀의
종류가 많긴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앞서
는 적절한 치료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며
적어도 무좀 도포제를 약 2주간 사용한
후 반응이 없으면 다른 병과 감별을 해
야 된다.

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무좀
이 만성화, 악성화로 진행될 때는 당뇨
병, 결핵, 비만증, 알콜 중독 또는 직업
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좀의 예방법으로는 되도록이면 공중
목욕탕을 피하고 땀을 잘 빨아 들이는
면양말을 자주 갈아 신으며 통풍이 잘되
는 신발을 신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필자=이화의대피부과학교실·의박)